

## II-1. 국내 만성두드러기 유병률 및 치료 패턴 분석

연구책임자	연구실무자	
예영민	이나미	이정동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학교실	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학교실	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통계 연구실

본 내용은 'Allergy Asthma Immunol Res. 2017 September;9(5):438-445.' 에 게재된 'Epidemiology of Chronic Urticaria in Korea Using the Korean Health Insurance Database, 2010-2014'를 요약한 것임

### 1. 배경 및 목적

- 두드러기는 가려움증을 동반한 부종, 팽진, 혈관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, 유병 기간과 유병 요인에 따라 구별됨
  - ▶ 급성 두드러기는 알레르겐, 식품, 약물, 식품 첨가물 및 감염에 의해 유발되며, 6주 이내에 소실됨
  - ▶ 만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외부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, 적어도 6주 이상 피부 가려움 및 팽진이 지속됨
  - ▶ 만성 두드러기의 지속 기간은 환자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, 평균 5 ~ 8년의 유병 기간을 보고함
  - ▶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긴 지속 기간, 갑작스러운 발생, 참기 어려운 가려움증, 외모 변화 등에 의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함
- 북미 및 유럽 인구에서의 만성 두드러기 유병률은 0.5% ~ 1.0%로 보고된 바 있지만 아시아 인구에서는 유병률 및 발생률, 약물 치료 현황, 사회적 부담 등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부족함
-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)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만성두드러기의 유병률 및 치료 패턴을 확인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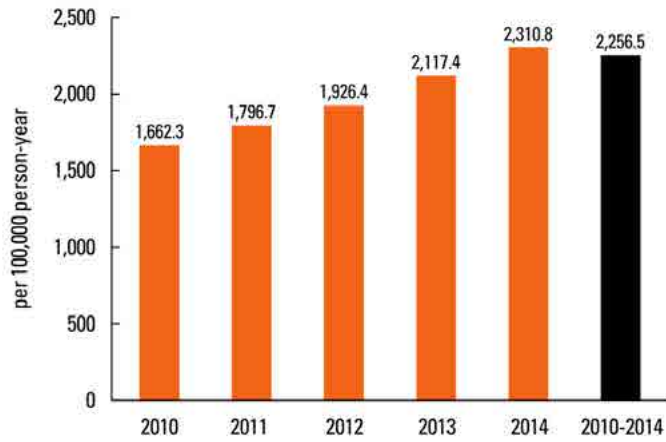


## 2. 연구 방법

- 자료원: 2010 ~ 2014년 건강보험 청구자료, 통계청 인구자료(2012년)
- 대상: 연구기간 동안 주진단명 L50(두드러기)으로 진단받은 환자
- 분석방법: 항히스타민제 처방일수(42일 이상) 등의 조건에 따라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정의하고,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의 유병률, 치료패턴, 동반 질환을 분석함
  - ▶ 조유병률 및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poisson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인년(person-year)\* 및 95% 신뢰 구간으로 기술함
    - \* 인년(person-year): 대상의 관찰기간이 서로 다를 때 사용하며,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의 관찰기간의 합임. 1인년은 1명을 1년간 관찰한 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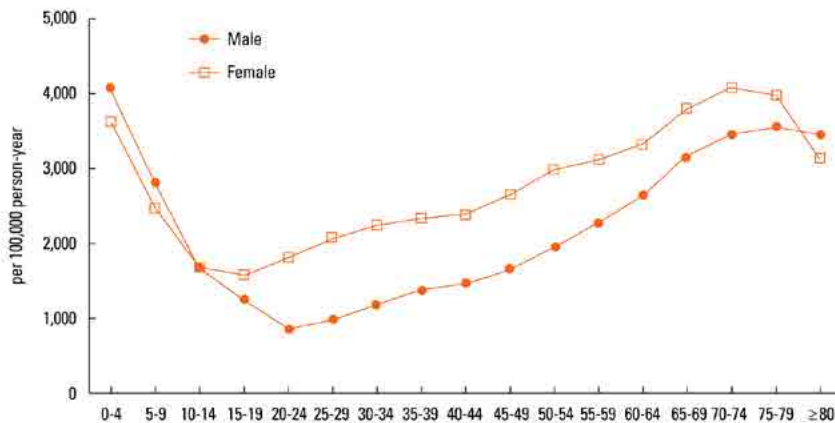
## 3. 분석 결과

- 2010년 ~ 2014년간 두드러기 케이스는 14,096,710건이었으며, 이 중 조작적 정의에 따른 만성 두드러기 케이스는 5,599,940건(39.7%) 임
  - ▶ 전체 두드러기 환자 중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연간 비율은 5년간 평균 23.5% 임
- 만성 두드러기 유병률은 100,000인년당 2,256.5명(95% CI, 2,252.3 - 2,260.6)이며, 연간 유병률은 2010년 100,000명당 1,662.3명에서 2014년 100,000명당 2,310.8명으로 꾸준히 증가함
  - ▶ 5년간 연령 조정된 만성 두드러기 유병률은 전체 인구 100,000인년당 2,138.4명(2,134.3 - 2,142.4)이며, 남성은 100,000인년당 1,819.2명 (1,813.9 - 1,824.6), 여성은 100,000인년당 2419.8명(2,460.7 - 2,472.9)임



[그림 1] Crude prevalence of CU (per 100,000 person-years) over a 5-year period. There was a significant linear trend in the crude prevalence of CU over the 5-year period ( $P < 0.001$ ). CU, chronic urticaria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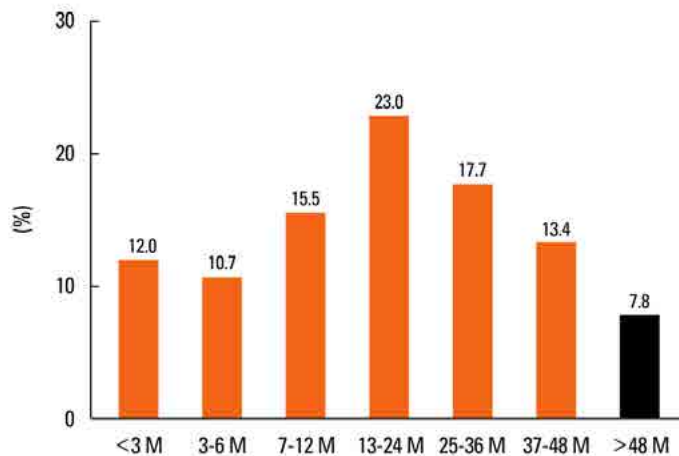
- 만성 두드러기의 연령별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, 10-29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
  - ▶ 10세 미만에서는 남성, 청소년 및 15세 이상 성인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



[그림 2] The prevalence of CU (per 100,000 person-years) specific to age and sex. CU, chronic urticaria



- 만성두드러기 환자의 평균 연령은  $41.6 \pm 23.2$ 세였고, 평균 6.7회 병원을 방문했으며, 평균 45.0일 동안 처방을 받았음
- ▶ 두드러기 유병기간의 중간 값은 591일이었으며, 처방약품 사용기간은 3개월 미만 12.0%, 3 ~ 12개월 26.2%, 12 ~ 24개월 23.0%, 24 ~ 36개월 17.7%, 36 ~ 48개월 13.4%, 48개월 이상 7.8% 임



**[그림 3]** Distribution of CU patients according to urticaria duration. M, month;  
CU, chronic urticarial

-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 27.2%가 항히스타민제만을 처방받았고, 69.9%는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를 함께 처방받음
- ▶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49.7%는 진정성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, 69.7%는 비진정성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음
- ▶ 스테로이드제 처방일수는 주사제의 경우  $3.2 \pm 5.6$ 일, 경구 스테로이드의 경우  $17.7 \pm 42.3$ 일임. 반면 cyclosporine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0.02%에서만 처방되었으며, 평균 처방일수는 5년 동안  $66.7 \pm 105.3$ 일이었음

-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흔한 동반질환은 위장병(62.8%), 알레르기비염(32.4%) 및 감기(26.9%)임
  - ▶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에서는 위장관 질환(30-64세 68.9%, 65세 이상 71.9%), 5세 미만 소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(50.1%)과 감기(60.0%)가 흔하게 동반됨

[표 1] Age-specific comorbidities of patients with chronic urticaria

Age (year)	Gastrointestinal disease	Rhinitis	Common cold	Asthma	Atopic dermatitis	Hypertension	Pvalue
<5	124,729 (28.3)	220,884 (50.1)	264,405 (60.0)	115,844 (26.3)	87,487 (15.3)	44 (0.01)	<0.001
5-29	670,630 (53.5)	450,489 (35.9)	373,875 (29.8)	113,580 (9.1)	139,467 (11.1)	996 (0.1)	<0.001
30-64	2,011,477 (68.9)	880,659 (30.2)	663,345 (22.7)	182,532 (6.3)	173,278 (5.9)	182,123 (6.2)	<0.001
≥ 65	708,415 (71.9)	262,358 (26.6)	203,604 (20.7)	84,506 (8.6)	57,130 (5.8)	183,348 (18.6)	<0.001
Total	3,515,251 (62.8)	1,814,390 (32.4)	1,505,229 (26.9)	496,512 (8.9)	437,362 (7.8)	366,511 (6.5)	-

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(%).  
CU, chronic urticaria.

#### 4. 결론

- 연구기간(2010 ~ 2014년)동안 만성 두드러기는 인구 100,000인년당 2,138.4(95% CI, 2,134.3-2,142.4)명의 연령 조정 유병률이 추정됨
  - ▶ 만성 두드러기의 연간 유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, 전체 두드러기 환자 중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비율은 5년간 평균 23.5%임
  - ▶ 연령별 유병률은 10세 이하의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에서 높았고, 여성 유병률은 15세 이상의 환자에서만 남성에 비해 높았음
- 만성 두드러기 평균 치료기간은 1.6년으로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했으며, 60% 이상의 환자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함



- 치료패턴에서는 항히스타민제 단독치료를 받는 환자가 30% 미만이었으며, 70%의 환자는 항히스타민제와 전신스테로이드를 함께 처방받았음
  - ▶ 항히스타민제 중 진정성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50%에 달하여, 스테로이드제 및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을 삼가하는 만성두드러기 진료지침의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- 항히스타민제 단독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전략이 필요하며, 스테로이드제 및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

